



2024년 9월 25일 대구퀴어문화축제 퀴어팔레스타인연대 발언 (남웅)

우리가 모여서 쿼어로 살아가고 있다고 외치는 자리를 경찰과 대구시가 막았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막아선 권력에 맞서 저항하기 위해 꺾이지 않고 거리에 모인 여러분과 연대의 인사를 나눕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학살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닐까. 사람들은 학살이 나쁘고 전쟁에 반대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연루된 문제이니 직접행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청이 아닌가 말이죠.

신원이 파악된 학살 희생자만 삼만 사천 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런 예들은 지구촌 곳곳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폭력의 뉴스에 무감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도 잘못했다고 동등한 전쟁인 것처럼 그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나쁘고, 팔레스타인도 나쁘다는 양비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학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 민중을 배제하고 이동을 제한해왔습니다. 보호를 명목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병원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시설마저도 파괴합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해 거리에 방치되어 주인 잃고 거리를 떠도는 굶주린 개들에게 뜯긴다고 합니다. 인종과 계층의 피라미드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은 개보다도 아래 놓입니다. 침공과 학살의 일선에 노출되는 이들은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입니다. 집도 도시도 파괴당한 상황에 여성은 성폭력에 노출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첨단무기를 수입해 철저히 파괴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쟁은 나쁘다는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며 방관하고 더러는 전쟁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 전쟁은 중동과 서구의 전쟁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해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무슬림국가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범죄화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침략을 정당화합니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양 영화와 문화컨텐츠를 만들고,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선봉이라도 된듯 선전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많은 국내 영화제에는 팔레스타인 성소수자를 무슬림사회의 피해자로 그리며 이스라엘이 구원자 행세하는 작품들이 연대의 이름 아래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의 핑크워싱은 성소수자를 위한 것도, 팔레스타인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들이 자신을 민주주의 침병처럼 위치 짓는 것이 기만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도구로 쓰며 전쟁에 동원하는 모습은 치사하지 않습니까. 중동을 야만처럼

취급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민주주의는 학살을 계속합니다. 민주주의가 피로 세워진다는 말이 유효하다면, 적어도 저들은 타인을 없애고 절멸하며 세워왔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지역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선의를 전시하는 인권친화적 태도 뒤에는 학살을 부추기고 방관하는 서구사회가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항의 행진을 만들어가는 대구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많은 투쟁의 현장이 있고, 일상에도 싸우며 삶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 시대 폭력과 학살에 맞선 저항이 집약된 현장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중과 평화를 지지하며 당장 학살과 점령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